



편지가 담는 것

현대청운고 2-3 김서준

하루는 고전소설을 배운 적이 있었다. 그 소설에서, 과거에 급제 하기 위해 멀리 공부하러 떠난 남편이, 몇 달 만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이미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식들이 편지를 받고 오열하는 내용이 있었다. 그 부분을 읽으면서, 정보 한 번 주고받기 위한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인 ‘편지’ 대신, 빠르고 쉽게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‘메시지’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.

1년간의 선도차장 활동을 마치고, 학교에서 선도부장이 된 날이었다. 기숙사로 돌아가려 할 때, 원래 선도부장을 맡고 있던 선배님께서 줄 것이 있다고 했다. 그것은 네모난 쪽지 모양으로 반듯하게 접혀있는 편지였는데, 나중에 기숙사로 돌아가 읽어보니 1년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격려와 선도부장이 된 것에 대한 축하를 담고 있었다. 신기했던 건, 많은 친구들의 축하 ‘메시지’를 이미 받았었는데도, 그때는 유독 기뻐던 것 같다. ‘그때 왜 그렇게 기뻐지?’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. 침대에 앉아서 다시 편지를 읽어봤다. 다시 읽어도 기쁘고 좋았는데, 그 이유를 알 것 같

았다. ‘편지’의 글자들은 ‘메시지’의 정형화된 글자와 달리, 편지를 쓴 사람만의 필체를 담고 있었다. 그 필체는 나로 하여금 편지를 쓴 이가 어떤 상황에서,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상상하게 했다. 두 줄로 그어 지워져 있는 글자들, 어떤 내용을 쓸까, 많이 고민했다고 말하는 듯한 진한 부분의 글씨들은 단순한 ‘텍스트’를 넘어 편지를 쓴 이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. 그래, 편지의 글들은 살아 숨 쉬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글을 쓴 이의 ‘마음’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다. 아! 그 순간 깨달았다. 편지는 단순히 내용만을 담지 않는다. 편지는 쓴 이의 ‘마음’을 전달한다. 편지는 수기로 쓰였기에 가질 수 있는, 편지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. 느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편지였다. 하지만 저 생각을 마친 뒤, 나는 편지가 주는 비효율의 맛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.

곰곰이 생각해 보니, 편지를 받은 날,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 기뻐던 것이 아니라 편지를 받은 그 순간부터 기뻐다. 아마 ‘반듯하게’ 접혀있는 모양의 편지, 선배님의 웃는 얼굴에서 나는, 이미 편지가 그 사람의 ‘마음’을 담고 있다는 것을, 원래 받던 축하 ‘메시지’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‘머리’로는 아니어도, ‘마음’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. 그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. 자식들이 그 편지를 보고 오열했던 것은, 어머니가 죽었고 아버지는 모른다는 ‘사실’ 때문이기도 하겠지만, 아마 자식들은 그 편지 속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에, 더 슬펐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

절대 ‘메시지’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. 메시지가 주는 속도의 이점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며, 편지가 주는 마음의 의미 또한 근사하다고 느낀다. 메시지가 있기에 편지의 의미를 고민할 수 있고, 편지가 있기에 메시지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. 그렇기에 여전히 나는 지금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. 그리고 저런 생각들을 통해, 항상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면서도 본래 것의 의미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.

